



 <p>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</p> <p>http://www.emerics.org/</p> <p>2019. 02. 27. 동남아시아</p>	<p>「동향세미나」</p> <p>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, 후보별 주요 경제공약 및 전망</p> <p>작성 신민이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)</p>
--	--

- 2019년 4월 17일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(이하 조코위)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(이하 프라보워)가 경쟁할 예정임.
- 각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인 단점을 보완한 인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함.
 - 무슬림에게 다소 신임도가 부족했던 조코위는 울레마 협의회(MUI)¹⁾의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결의기구임. 의장인 마루프 아민을 부통령 후보로 채택함.
 - 무슬림의 지지도가 높은 반면에 친기업적 이미지, 청년층의 지지가 부족한 프라보워는 기업가 출신 젊은 정치인인 산디아가 우노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움.

표 1.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별 주요 특징

조코 위도도(Joko Widodo) 대통령 후보 마루프 아민(Ma'ruf Amin) 부통령 후보	프라보워 수비안토(Prabowo Subianto) 대통령 후보 산디아가 우노(Sandiaga Uno) 부통령 후보
조코 위도도 - 現 인도네시아 대통령(2014년~) - 前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(2012~14년) - 군 경력이 없는 서민 가정 출신의 기업가 - 민주투쟁당(PDI-P) 소속	프라보워 수비안토 - 現 대인도네시아운동당(Gerindra)총재(2008년~) - 2009년과 2014년 대선에서 두 차례 낙마 ²⁾ - 군인 출신 정치인
마루프 아민 - 現 울레마 협의회(MUI) 의장 - 인도네시아 내 가장 영향력있는 무슬림 인사 중 한 명	산디아가 우노 - 전 자카르타 부지사(2017~18년) - 기업가 출신 정치인 - 2013년 인도네시아 내 47번째 자산가

자료: EIU, HanIn Post를 토대로 저자정리.

- 경제공약 부문에서는 조코위와 프라보워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, 일부 역점 분야에서만 차별화된 부분이 존재함.
- 양 후보는 공통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평가되는 인프라 개선,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, 불평등 개선을 가장 강조함.
 - 조코위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수 공약에 포함하고 강조한 반면, 프라보워는 디지털 농업혁신을 제외하고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.
 - 양 후보 모두 농업부문에 대한 공약을 공통적으로 채택했으나 프라보워의 경우 경제분야 41개 공약 중 농수산업 관련 공약이 9개에 달해 농업부문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됨.

1)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결의기구임.

2) 2009년은 부통령 후보, 2014년은 대통령 후보였음.

표 2.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 주요 경제관련 공약

		조코위	프라보위
공통	인프라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관협동 인프라 개선 추진 - 신규 경제 중심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- 특별경제구역(SEZ)의 발전과 인프라 개발의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곽지역의 인프라 개선 -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전
	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조업, 식료품산업, 해양산업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- 혁신센터 조성 및 기술혁신 촉진 - 관광업 육성 -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- 혁신에 기초한 스타트업 육성 - 자본재 생산 확대를 통한 자본재 수입의존 축소 - 관광업 육성
	불평등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간 소득 불균형 개선 - 농업 및 어업 기술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대 - 기초 생필품 가격 안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대중교통수단 마련 - 지방 공공시설 확대 및 관리를 위한 자금 추가 편성 - 농업 종사자의 생활수준 개선
비공통	대외 개방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산부품 의무사용(TKDN) 활용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노동자보다 자국노동자 우선 - 석유 및 가스부문의 국가주권 회복
	공통 분야 외 강조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디지털 경제: 디지털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, 관련 법적제도 정비,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수산업: 농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은행 설립, 농업 인프라 확대, 농업분야 혁신, 농산물 유통체인 개선, 디지털 농업혁신을 통한 생산력 증대

자료: 양 후보의 선거공약집을 토대로 저자 정리.

□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코위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나,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감소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.

- 2019년 1월 8일 발표된 IPI(Indikator Politik Indonesia)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코위 지지율 54.9%, 프라보 지지율 34.8%로 격차가 20.1%p를 기록했으나, 이는 9월 조사 지지율 격차인 25.2%p(조코위 57.5%, 프라보위 32.3%)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.
- 조코위 당선 시 경제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는 한국기업 현지활동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, 국산부품의무사용(TKDN) 확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.³⁾
 - 조코위 정권은 2015년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국산부품의무사용 정책을 도입한 이후 의무사용 비중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, 이번 공약에 해당 정책 활용 확대를 포함함.
- 프라보위 당선 시 공약이행의 불확실성과 대인도네시아운동당의 민족주의적인 성격 상 외국인에 비호의적일 수 있다는 점은 한국기업에게 부담요소가 될 수 있음.⁴⁾ **EMERiCs**

참고자료

The Jakarta Post, Hanin Post, 선거공약집, EIU 등

3) 조코위는 경제정책 총괄로 현 재무부 장관인 스리 물라니 재무부 장관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어 비슷한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확률이 높음.

4) 프라보위는 메가와티 정권(2001~04년 집권)에서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을 역임했던 퀵 키안을 경제정책 총괄로 고려하고 있으며, 퀵 키안은 대외개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.